

촛불 이끄는 국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광화문·부산·대구·제주 등
집회 때마다 전국을 하나로
성탄 전야 9차 집회서도 제창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들어낸 '촛불 혁명'을 이끌고 있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 때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 정권이 억누른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곡이 지역을 넘어 '국민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다.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발적 시민 참여로 시작, 평화적으로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가 5·18민주화운동과 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특별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과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광주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지난 10월29일 열린 1차 광주시국촛불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17일 열린 8차 집회 때까지 시작곡과 마무리 곡으로 제창됐다.

전남 대부분지역에서는 주말 촛불 집회 시작과 함께, 바다 건너 제주에서는 매주 집회 때마다 참석자들이 촛불을 높게 들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지난 12일과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7차, 8차 촛불집회에서는 60만~80만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이 노동자 수련합창과 시민합창단의 노래에 맞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장관을 만들었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제창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앞서 '11·12 민주총궐기'에서는 공식 식순인 민중의례 대신 50만명의 노동자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본 행사를 시작하고, 고(故) 백남기 농민 노제에서도 첫 곡으로 불리는 등 박 대통령 정권이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거부한 노래가 박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재조명되고 곳곳에서 제창되면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남정수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과 촛불집회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며 "역사적 의미와 내용들이 촛불집회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을 통해 불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성탄전야인 24일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퇴진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을 개최한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한 뒤,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 축제 분위기를 곁들여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 금남로에서는 9차 광주시국촛불대회를 열고, 전남 17개 시·군에서도 같은 시간에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김정민기자kki@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 "더이상 방치 안돼 법원 강제조정 수용"…이의신청 철회
사업자, 옛 국군병원 내 32억 상당 트라우마센터 지어 기부키로

광주시는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내년에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서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 협조를 구한 만큼 지난 6월 내려진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업무영 문화체육관광실장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현실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30일 어등산 관광단지 분쟁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시에 기부하고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가 그동안 투자한 229억원을 돌려주라"고 강제조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기부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해 광주시는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기하고,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TF팀을 구성·운영했다.

이후 6차례 협회가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상 테이블은 지난 14일 시민단체의 TF팀 집단 보이콧으로 논의 구조가 이리저리 지 5개월 만에 깨졌다.

염 실장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해 좌절하다"며 "본안소송으로 갔을 경우 시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3~5년 정도는 현 상황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사업추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속에 '교육지책'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

된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즉시 철회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을 철회하면 지난 6월 법원의 결정이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한다.

광주시는 내년 초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적, 내용을 결정된 뒤 이르면 2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협의과정에서 사업자측으로부터 옛 국군광주병원 내 134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트라우마센터(32억원 상당)를 지어 뒤 내놓겠다는 추가적인 사회공헌 방안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순실·안종범·정호성 26일 구치소 현장청문회

국회, 불출석 처벌 강화 나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22일로 모두 5차례 청문회를 마쳤으나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출석도 하지 않아 무용지물 청문회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부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2차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을 다시 보는데는 지적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증인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등 '주 고리 3인방', 기일에 재단 모금활동을 주도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은 국회의

동행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줄줄이 출석을 거부했다. 또 최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윤진후, 이영선 전 행정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정특위는 오는 26일 동행명령을 두 차례 거부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수감된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 씨에 대한 청문회는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는 오후 2시 남부구치소에서 열린다.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특위는 계획서에 수사나 재판에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못박아줬지만 핵심 증인엔 무용지물이었다. 출석을 거부해도 좀처럼 처벌받지 않는 관행 탓이다. 국회는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르쇠'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악 AI 해님이·해맞이 행사 취소 ▶6면



새판도유람-포항 과메기 3昧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현재 "박대통령 '세월호 7시간' 구체적으로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22일 시작됐다. 현재는 신속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박한철 현재소장으로부터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약 40분 동안 진행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다음 준비절차는 이날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지산 지산동의 고품격 아파트!
HY 한양건설 Leaps
무등산의 푸른 자연과 풍부한 생활인프라에 혁신평면까지
광주를 빛낼 최고의 주거문화가 시작됩니다

더 좋은 지산동의시작!

중도금무이자/확정분담금

토지매입확보

홍보관 위치도 | 현장 위치도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홍보관(구.이화대입구) |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사업현장

■ 홍보관 주소 : 광주 동구 남문로 537(구.이화대입구) | 현장 주소 : 광주 동구 반실로 42번길 76 일원

전용 59㎡, 84㎡A,B | 층 464세대

문의 062) **229-0005**

시행사·(가칭) 지산동지역주택조합 | 시공예정사: HY 한양건설 | 자금관리: 아시아인스타(주)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반실로 42번길 76 일원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6~18층 87세대 ■ 본 계약물에 사용된 이미지, 기재된 내용, 문구, 건물외 색채, 디자인 등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작 또는 표기된 것으로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되거나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